
실질적 성과를 이루는 2011년을 만든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년도 사업계획 발표 -

2011. 3. 2



'21C 농산업 미래가치 창출 전문기관'

목 차

I. 인사말씀	1
II. 2011 주요 추진사업	3
III. 2010 실용화사업 베스트 10	11
IV. 참고자료	19
V. Q & A	23
VI. 보도자료	29

인 사 말 씀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전운성입니다.

신묘년 새 아침을 맞이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대동강물도 녹는다는 우수가 지나고 춘삼월입니다. 우리 농산업 현장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여기 모이신 기자님들이 베풀어 주신 호의로 저희 재단이 빠른 정착과 안정을 통해 발전의 초석을 든든히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동안의 기반마련을 발판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농식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산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기술평가센터를 신설하고 기술거래 활성화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기술평가센터는 농식품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술가치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대출, 보증 등 농식품 기술금융제도 도입,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웰빙, 가공 수요 증가에 따라 특수미 등의 재배면적이 늘고 종자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개발 신품종 종자 종묘 증식을 확대해 우수개발 품종의 조기 증식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5년까지 농산업 부가가치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역량과 열정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현장중심 경영을 전개하여 시장과 고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사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업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은기 총괄본부장입니다.

정상욱 기획운영본부장입니다.

박호기 기술마케팅본부장입니다.

신진섭 분석검정본부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주요 추진사업

II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1년은 지난해 기반구축을 발판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농식품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 활성화

마케팅 분야에서는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사업성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및 활용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농식품 산업현장 수요기술 반영, 기술의 패키지 및 산업간 융·복합,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을 확대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산업현장에 이전되어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둘째, 기술평가를 활성화하여 농식품분야에도 기술을 담보한 대출·보증 등 기술금융도입을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셋째, 우수기술의 최적수요자에 대한 마케팅 집중으로 기술이전을 극대화 하고 우수기술 이전 및 투자설명회, 실용화촉진 모델 공모전 등 농식품 기술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공 R&D 성과의 기술이전 산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기술사업화 애로기술 지원으로 농산업체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시켜 가겠습니다.

다섯째, 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협력, 기술정보 공유, 농업기술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국내 농업기술의 수출

및 신 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 진출 기반 조성 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착실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 ☞ 농식품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도 제고
- ☞ 농식품 우수연구성과 기술평가 활성화
- ☞ 농식품 기술시장 활성화
- ☞ 기술이전 업체 실용화 성공 지원
- ☞ 기술실용화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성과의 산업화 촉진 및 농산업기반 확충

사업화 분야에서는 유망한 기술의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농식품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특히, 영농활용 기술 및 노하우 등 농식품분야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전에 기술가능성, 시장성 등 사업화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술적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패키지화하여 모델 개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성공적 사업모델의 개발을 위해 관련기술과 더불어 기술사업화의 성공열쇠가 될 마케팅 전략을 수립 적용코자 하며, 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은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농기업에 기술이전 또는 희망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정부정책사업으로 제안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통한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사업화의 한 방법으로서 농식품 분야의 탄소표시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GAP 인증 활성화 및 전통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등을 통한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우수신품종의 신속한 농가 공급 및 확산을 위해 현장요구도가 큰 특수미, 바이러스 무병묘와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틈새 품목 등에 대한 종자·종묘의 증식 확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아가 지자체, 농업법인, 농업인 등이 쉽게 최신 종자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농식품 및 BT(바이오 기술분야)에 특화된 창업보육을 위한 창업보육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농기업의 창업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 기술 융복합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화
- ☞ 녹색기술 확산 및 농식품 품질 향상
- ☞ 종자·종묘 증식 사업 및 기반 구축
- ☞ 농식품 창업보육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험·분석·검정 서비스 제공

분석·검정기반 구축 및 고객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고효율 성능 시설·장비 확보 및 분석검정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공인시험기관 운영으로 국내외 공신력 및 효율성을 높이며

의뢰 고객 전용 창구인 「고객상담실」 설치 및 실험실정보화 시스템(LIMS)을 고도화하여 고객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반 및 농자재에 대한 유효성분, 유해성분 등 요인 분석과 품질검사로 농업환경 개선과 양질의 농자재 공급에 기여하는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 추진과 분석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며, 농기계 품질 및 안전성 확보로 농기계산업 기술 성장 제고와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검정서비스로 현장애로 해결 및 업체 비용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분석·검정기반 구축 및 고객서비스 선진화
- ☞ 농산물, 농자재 품질 검사 및 농업환경 시료 · 농산물 원산지 분석
- ☞ 농기계 품질 및 안전성 검정

최고 전문기관 역량 조기 구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소통하는 조직문화, 즐겁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별 서비스 요구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객관리 채널을 구축,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단 특성과 연계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 ☞ 조직역량 강화와 소통하는 조직문화
- ☞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 및 사회적 책임 완수
- ☞ 홍보 및 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2010 실용화사업 베스트 10

III

1. 연구개발성과 기술이전의 획기적 증가(2배 수준)

- 최근 3년 평균('07~'09) 151건, 2.7억원 ⇒ ('10) 293건, 5.1억원
- * 사이버 기술장터 오픈 : 2.16~ , 1,810여개 기술 등록

「굳지 않는 떡」 제조방법('10.10~'11.2, 기술료 133백만원)

- ▷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이용과 연구실에서 첨가물을 이용하지 않고 멥쌀 떡류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 완료
- ▷ 재단에서 현재 CJ 제일제당 등 35개 업체와 기술이전 협약 체결
 - 떡 가공업체 및 방앗간 등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멥쌀 떡류의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켜 떡 시장성장과 산업발전에 공헌

2. 농업인·농산업체 특허출원비용 지원

- 농업인·농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 농식품 기술의 부가가치 제고 및 안정적 권리확보로 기술실용화 기반 마련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22건 지원)

- ▷ 영세 농업인 및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출원 비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비용 등 (총 35건 접수 22건 지원)
 - '11년 농과계 학생까지 지원 대상 확대
- ▷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지원으로 농식품 산업이 지식기반형 생산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기여



3. 민간개발기술 민간에 첫 이전 성사

○ 농업분야 첫 민간 개발기술 이전 성사

⇒ 농업인 등의 개발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조성 전망

농업인 개발 「4조식 비닐피복기」 기술이전 성사

▷ 기술 이전 성사과정

- 개발자 권영섭씨(남해군)가 농사를 지으면서 불편한 점을 직접 개선하여 개발한 '4조식 비닐피복기' 기술 평가 문의('10.9)
- 재단 내 기술가치평가사 등이 기술평가 후 2010년 12월 'SETEC 우수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피복기 전문업체인 (주)불스에 기술이전 성사



▷ 사업화 하지 못했던 민간 우수기술 발굴, 관련 업체 이전을 통해 농식품 기술의 부가가치 제고 기대

4. 농식품 우수기술 경제적 가치평가 수행

○ 농식품 우수기술의 기술평가를 통한 사업적 활용도 제고

⇒ 기술평가에 의한 적정 기술료 산정과 사업화 성공 지원

재단 내 「기술평가센터」 신설

▷ 농식품 우수기술의 평가 전담 부서 설치 추진('10.09~'11.02)

- 기술가치평가사, 변리사, 회계사 등 기술가치평가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직제개정 '기술평가센터' 설치('11.2.1)

- 농식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가치평가 모델 개발

* 재단은 '10.7.5 농식품 분야에서 유일한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 기술가치평가사 25명 · 기술거래사 25명 확보, 기술평가자문위원 공모 : 850명

▷ 농식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가치 평가모델 개발 및 우수기술 산업적 활용도 제고 기대

5. 거점산지 농산물 유통센터(APC) 공정효율화 모델 개발

- 공정진단 및 개선을 통해 품목별(복숭아, 수박, 사과) 처리 공정효율 개선 및 인원 절감

「음성 햇사레 APC」 공정효율 개선 작업

▷ 시설장치 공정효율개선 20% 이상을 목표로 거점 APC 시스템 관리 및 운용체계 정책사업 제안

- 선별제어 등 5개 분야 기술전문가 9명 구성, 음성군과 공동사업협약 체결
- 수박라인 공정개선으로 매출액 증가 : 8.4억원('09대비)
- 복숭아라인 공정진단으로 30백만원/년 APC 수익 예상
- 선별장 국부냉난방 시스템진단 에너지 절감 20%

6. 농식품 탄소사업 이니셔티브 확보

- 농식품 탄소표시제 도입을 위한 인증기반 구축 및 탄소감축 사업화 추진
- ⇒ 탄소오프셋, 탄소배출권, 탄소 상쇄사업 등 농업부문의 새로운 부가가치 확보
- ⇒ 탄소사업 예산 ('11년 5.5억원 → '12년 30억원)

농식품 탄소감축 사업을 위한 첫 발판 마련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식품 생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구축

- 국내 최대 산·학·관·연 농식품 탄소전문가 포럼 개최(5회)
- 농식품 녹색성장 전략 등 탄소포럼 자료집 발간(5권)
- 에너지 관리공단과 기후변화대응 사업 MOU체결
- 농업식품 탄소감축을 통한 선제 대응방안과 정책지원

▷ 농업 탄소배출량 인증실시를 위한 기반 구축 마련

7. 농식품 관련 벤처창업 보육으로 해외 수출 성공

- 14개 역외보육업체 선정하여 기술, 경영, 마케팅, 법률 등 지원
⇒ 벤처기업 인증, 법인설립, 기술력 강화, 매출액 증가 등 가시적 성과

창업보육업체 「논다매」 일본 수출계약 체결

- ▷ 창업보육업체 (주)성진텍은 다목적 친환경 수직전단형 제초기 ‘논다매’ 개발, 재단 벤처창업보육업체로 선정
 - 벤처창업보육센터는 박람회 참가 지원 외에 PCT 출원, 시제품 제작, 계약서의 번역 및 법적 검토 등 지원
 - (주)성진텍은 재단의 지원하에 ‘2010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 참가
 - 일본의 Hiraki Shoji Co.Ltd.사와 2년간 총 20,000대 이상 판매(약 10억원) 계약을 체결하여 1차분 선적('11. 3. 25) 준비 중



8. 수요자가 원하는 신제품 우수종자 증식

- 현장수요 충족과 문제해결 분야에 중점(66품종)
- ※ 특수 기능성 및 가공용 벼 신제품 종자 확대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 '11년 특수미 보급종 140톤 생산, 우수품종 보급 확대

「벼 종자 증식·공급」사업 실시('10)

- ▷ 주정용 ‘설갱벼’, 쌀 국수용 ‘고아미’ 등 특수 기능성 벼 종자 증식
 - 가공용 벼 신제품의 조기 공급을 위한 증식사업
 - '10년 종자 27톤 생산 ⇒ '11년 675ha, 원료곡 4,725톤(정조) 생산가능
 - 경제적 파급효과 75억원
 - 전통주 생산업체 국순당, 안동농협, 정남농협 등 5개 쌀 가공업체 공급



9.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지정으로 공신력 확보

- 국내 : 농약시험연구기관(3월), 비료시험연구기관(5월)
- 국외 : KOLAS로부터 9개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2010년 「KOLAS 8개 분야」 추가 인정 획득

▷ KOLAS로부터 '10년 화학 4개분야(비료·사료·토양·잔류농약),
농기계검정 4개 분야(보호구조물·발열량·비파괴·저온저장고) 추가 인정 획득
- ('09) 1개 ⇒ ('10) 9개 분야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 정부기구

▷ 분석검정결과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 획득으로
신뢰도 높은 서비스 제공

10. 고객 중심의 고품질 분석·검정서비스 제공

- 농진청 각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던 분석업무를 재단 종합분석
검정센터로 일원화


⇒ '10. 2. 16부터 종합 분석검정실 본격 가동 돌입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설치 운영

▷ 인터넷을 통한 고객중심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 LIMS(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실험실내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스템

▷ 인터넷 접수, 실시간 진행과정 확인, 인터넷 성적서
등 업무효율성 제고



참고자료

IV

1

일반 현황

가. 설립근거 및 성격

- 「농촌진흥법」 제 14조의 2 설치근거를 둔 특수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나. 연 혁

- 2009. 3. 5 농촌진흥법 개정, 공포
- 재단 설립근거, 사업범위, 지원근거 등 신설
- 2009. 9. 7 임원 임명, 설립 등기 및 출범
- 2010. 1. 2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기획재정부)
- 2010. 7. 5 기술거래/평가기관 지정(농림수산식품부)

다. 조직 4본부 5실 9팀 1센터(정원 161/현원 130)



Q & A

V

Q1)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재단으로 이관한 후 주요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0.8.25일자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농촌진흥청 우수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단의 업무이관 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자의 특허출원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본연의 업무인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세서 작성 등 Paper-work 업무를 연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출원업무 부담을 50% 이상 경감 하였습니다.
 2. 특허성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특허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출원함으로써 특허 등록률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문서 수·발신에 의한 업무처리의 부정확·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누락·중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의 우수한 R&D 성과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통해 실용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3)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본 지원사업은 농산업 현장에서 농업인 또는 농산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권리확보 마련으로 농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i)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사업화 상담과 ii)출원비용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10년도 사업결과 100여 건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을 컨설팅 하였으며, 농업인·농산업체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22건*에 대한 출원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 총 35건을 접수하여 중복지원 신청 건 등 지원 결격사유가 있는 13건을 제외한 22건(농업인 11건, 농산업체 11건)에 대하여 출원비용을 지원

Q4) 2011년도 농업분야 공공 R&D 성과 실용화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이 사업은 농업분야 공공기관 보유기술을 이전 받은 기술이전업체가 해당 기술을 실용화하는 데 소요되는 시제품제작 비용 등 추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며, 기술개발 위험요소를 최소화 혹은 기간을 단축하며, 개발비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금년 지원규모는 20억원이며,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농촌진흥청 직무발명의 실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중 공공 R&D 기술을 신규 이전받아 사업화하겠다는 기획(안)을 제시한 25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개발부터 제품화 전(前) 단계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전체사업비 1억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업체는 총 사업비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업체부담금 중 현금은 총 사업비의 5%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5)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 우리재단은 '10년 7월5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식품 분야

에서는 유일한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회계사, 기술가치평가사, 변리사,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 기술평가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술평가 업무기반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지원과 기술평가를 연계하여 우수기술보유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농식품분야 우수기술보유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 기반의 기술금융(보증·대출)제도 도입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 중입니다.

Q6)최근에 쌀관련 이슈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쌀의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 재단에서는 쌀을 전통 방식대로만 활용을 한다면 그 부가가치를 더 이상 높이기도 어렵고 소비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최신 R&D 성과인 가공용 특수미 종자 증식기술과 글루텐프리 쌀가루 제분기술 및 쌀소재 식품 가공기술 등을 적용하여, 쌀의 다양한 이용을 위한 가공제품의 개발 및 이의 보급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새로운 쌀관련 시장 트렌드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Q7)분석검정서비스는 과거 농진청에서 할 때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 그동안 농촌진흥청의 여러 소속기관에서 각기 처리하던 분석검정 업무가 재단에 이관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기관 핵심 업무인 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단이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 인정 등을 획득하여 분석검정 수행기관으로 공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 또한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험실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구축하였으며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모심방』을 2011년 1월부터 운영하며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화학유망

보고자료

VI

<p>보도 참고자료</p>	<p>기술을 넘어 실용화로 FACT Foundation of Agri. Tech. Commercialization & Transfe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www.efact.or.kr</p>	<p>제 공 일 : 2011. 3. 2. 자료제공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담 당 자 : 조용섭 팀장(031-8012-7210) 홍보담당 : 문지은 연구원(031-8012-7142)</p>
---------------------------	---	--

농식품분야에도 민간기술시장이 열린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분야 첫 민간 개발기술 이전 성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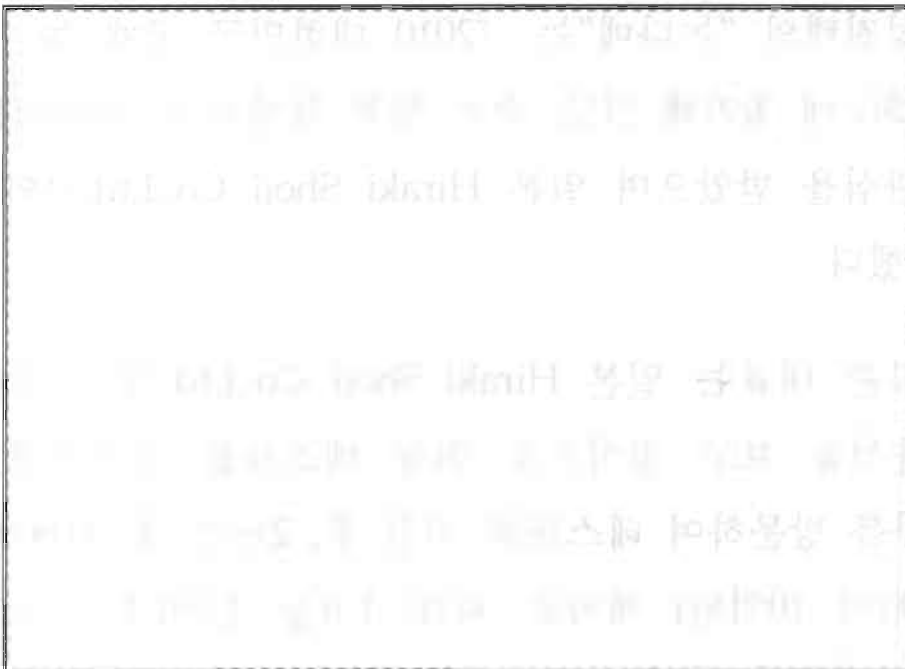
- 농업인이 직접 개발한 '4조식 비닐피복기 특허기술'이 피복기 전문업체 (주)불스로 이전 성사되었다.
 - 이번 기술이전은 농식품 분야에서 민간개발기술이 이전된 첫 사례로 향후 기술거래·평가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농업인 등의 개발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전운성)은 지난해 개발자 권영섭(해남군)씨가 재단을 방문하여 지난 수년간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해 개발한 '비닐피복기 기술'이 산업체에 이전되도록 중개해 왔었다.
 - 재단은 권영섭씨가 개발한 기술을 재단 내 기술가치평가사, 농기계 전문가 등을 통해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기계의 작동상황을 확인하는 등 기술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결과 '비닐피복 기술'이 △작업면이 경사진 곳에서도 복토가 잘 되어 바람에 비닐이 날리지 않고 △돌이 걸려도 자동 배출하며 △별도 인력없이 비닐을 자동으로 절단하고 △이랑의 폭이 약간씩 다른 밭에서도 피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따라 재단은 2010년 12월 SETEC(서울무역전시관)에서 개최한 우수기술 설명회에 '비닐피복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 12월 17일부터 3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농업기술장터(mart.efact.or.kr)에서 기술경매를 진행하는 등 기술거래 성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 농기계 제조업체 (주)불스 등 3개 업체가 관심을 보인 가운데 개발자와 수차례 협상을 중재하여 △해당 기술에 전문성이 높아 기술사업화 역량이 높고 △적정수준의 기술이전 금액을 제시한 (주)불스를 최종 선정하고,
 - 피복기 기술일체(특허 3건)와 기술이 적용된 '4조식 비닐 피복기' 한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
- 농식품 거래기관을 통한 민간 기술거래는 △농업인 개발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자가 적정 기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지원하며 △기술수요자에게는 개발 소요시간이나 인력 없이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바로 구매·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민간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간 기술공급자 및 수요자 발굴, 민간기술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비닐피복기



비닐 피복기 이앙모습

<p>보도 참고자료</p>	<p>기술을 넘어 실용화로 FACT Foundation of Agri. Tech. Commercialization & Transfe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www.efact.or.kr</p>	<p>제 공 일 : 2011. 3 2. 자료제공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담 당 자 : 전영걸 선임연구원(031-8012-7311) 홍보담당 : 문지은 연구원(010-8777-8856)</p>
---------------------------	--	--

친환경 제초기 “논다매” 일본수출 성공

- FACT 창업보육업체 (주)성진텍 2년동약 약 2만대 판매계약 체결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FACT) 벤처창업보육센터의 보육업체인 (주)성진텍(대표 박성준)의 다목적 친환경 수직전단형 제초기 ‘논다매’가 일본에 수출된다.
 - ‘논다매’는 제초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커버와 덮개, 회전 날을 간편하게 부착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작 자연농법, 유기농법 등의 중경제초작업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제초와 로터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 (주)성진텍의 “논다매”는 『2010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에 참가해 인도, 중국, 일본 등에서 온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일본 Hiraki Shoji Co.,Ltd.사와 계약에 성공했다.
 - 박성준 대표는 일본 Hiraki Shoji Co.,Ltd.사가 “논다매”의 효율성을 보고 정식으로 현장 테스트를 요청하였고 울진 본사를 방문하여 테스트를 거친 후, 2년간 총 20,000대 이상 판매(약 10억원) 계약을 체결, 1차분 선적(‘11년 3월 하순, 5,000세트)을 위해 수출제품을 제조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재단은 이번 수출 지원을 위해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외에도 PCT출원, 시제품 제작, 계약서의 번역 및 법적 검토 등을 지원하였다.
-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보육센터는 농식품·BT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5개 내외 보육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선정된 보육업체는 창업단계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도 △창업관련 법무·법률 △기술획득 및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컨설팅 △자금알선 △각종 분석·인증 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주)성진텍 박성준 대표는 “이번 수출계약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라면서 2011년에는 중국과 인도 시장에도 진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붙임 (주)성진텍 논다매



(주)성진텍 “논다매”



2010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 참가모습